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출판의 현주소

‘한국어의 세계화’ 기대에 못 미치는 한국어교재
신뢰할 만한 교재 개발, 해외 영업망 확충 시급

지난해 말 어두운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사람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소식이 있었다. 한류가 그 세력과 범위를 넓혀가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의 한류는 일부 드라마나 연예인을 열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문화교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분야의 한류와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한국학 개설강좌는 1990년 32개국 150개 대학에서 2004년 3월 기준으로 59개국 673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대학에 등록된 유학생 수는 7,100여 명으로 중국인 학생(5,400여 명, 전체 58퍼센트)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시행 7년 만에 8배로 늘어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처음 실시된 1997년도에 2,274명이 응시한 이래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해 작년에 실시한 제8회 시험에는 지원자수가 1만7,531명으로 작년보다 44퍼센트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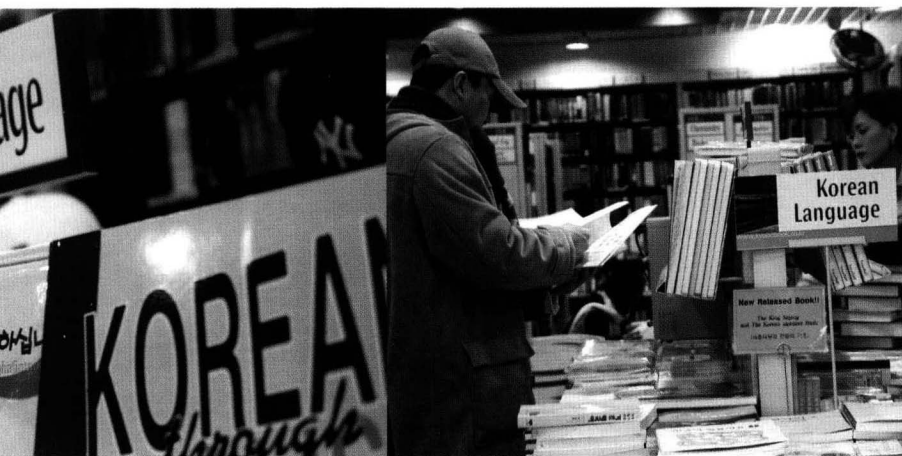


한국어교재 내용 천차만별... 전문 강사 확충도 시급

하지만 지금과 같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배우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섬세한 한국어교재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어교재 개발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국어교재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민현식 교수는 2000년에 발표한 <한국어교재의 실태 및 대안>이라는 논문에서 주요 기관 교재들을 평가 분석하고 1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그 중에서도 특히 ‘표준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수립’, ‘한국어 교육용 표준문법의 공표’, ‘번역 문법 용어의 통일’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한국어교재는 각 대학의 한국어학당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나온 <한국어> 외에는 교재에 따른 교사용 지침서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같은 교재를 쓰더라도 강사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김정숙 교수는 “일본 등 외국에서는 비전문인이 한국어를 가르치다보니 오히려 학습욕구를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의 확충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학



습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어세계화재단 오관근 연구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의 현지화 작업, 한국어교육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연구원은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기관이 너무 많고 정보공유가 안 되다보니 서로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나서서 중복한 사업을 피하고 필요한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현재의 교재가 대학의 어학당이나 사설 학원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학습자의 국적이나 연령, 처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다양한 한국어교재의 개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등 해외교포 2·3세를 대상으로 현지 개발된 한국어교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북미 지역의 한국어 교사 김정희 씨가 개발한 《재미있는 한국어 놀이》는 동물이나 음식 등 어린이들의 관심 대상을 쫓아 그려진 그림을 퍼즐이나 문장으로 연결해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교재이다.

11세 때 뉴욕으로 이민가 하버드대를 졸업한 김계정 씨는 영어권 한인들이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점을 착안해 《십배 사전》을 출간했다. '한 가지를 알면 열 가지를 익힐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700개 한자를 뽑아내 그 한자가 포함된 단어를 영어와 함께 설명했다. 이들 교재는 현지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져 쉽고 친근감 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돈 안되는 출판’ 인식 탈피, 상업출판 가능성 일어

그동안 한국어교재는 일반출판사에서는 꺼리는 분야였다. 시장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심스럽게 한국어교재의 상업출판이 모색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현지에선 한류와 관련한 출판 종수가 약 3,000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중 한국어 관련 교재는 매달 10만여 부 이상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일본 연예인 초난장(쿠사나기 츠요시)이 2002년 발간한 《정말북》은 일본에서 30만 부 이상 팔리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외로 한국어교재 시장이 확대되자 성균관대학교에서 《배우기 쉬운 한국어》(전6권)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대학출판부에서도 기존의 한국어교재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상업출판사들도 서둘러 다양한 한국어교재를 준

비하고 있다.

상업출판사로서 대표적인 곳은 작년까지 《가나다코리아》와 《이지코리아》 등 사설학원교재를 비롯해 5종의 한국어교재를 출판한 시사일본어사다. 시사일본어사 나승재 마케팅 부장은 "1997년 투자기념에서 《가나다 코리아》를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는 《가나다 코리아》이 후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어교재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장은 "좀더 시간이 지나면 기업이나 아카데미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자리잡을 것"이라며 "최근의 분위기에 편승해 성급히 한국어교재 출판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어교재는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등 해외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과 해외영업망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4] 취재 신동섭 기자

국어기본법 제정

지난 12월 29일 문화관광부가 발의한 '국어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한글전용법률을 대체한 것으로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어와 한글 사용에 관한 통일된 법안이 제정된 것이다. 특히 이번 국어기본법은 국어사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등 한국어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재 개발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 한국어의 세계화를 염두에 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어기본법 제4장 국어의 국외 보급

제21조(국어의 국외 보급)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 교재를 지원하고 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칠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국외 보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국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교재 개발·보급과 교사 양성·파견
2.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와 국제 협력
3. 그 밖에도 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④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